

구하천보의 불교사상 고찰*

김응철**

• 목 차 •

- I. 서언
- II. 구하스님의 행장 분석
 - 1. 출가와 수행
 - 2. 통도사의 소임
 - 3. 지역포교 활동
 - 4. 광복 이후의 종단 활동
- III. 구하스님의 불교사상
 - 1. 실용주의적 개혁사상
 - 2. 참피극기의 도덕사상
 - 3. 진공묘유의 중도사상
 - 4. 대자유의 평등사상
- IV. 결어

* 본 연구는 2015년 1월 1일 통도사 영축문화재단에서 주최한 『근대 영축의 중흥조 구하』라는 대주제의 학술회의에서 「구하스님의 행장 분석과 불교사상 연구」라는 제목으로 발표된 논문을 수정 보완한 것이다.

** 중앙승가대 포교사회학과 교수.

© 『大覺思想』 제37집 (2022년 6월), pp.43-67.

한글요약

구하천보(1872~1965) 스님은 구한말과 대한제국, 일제강점기, 그리고 해방과 대한민국 건국의 과정을 지켜본 선지식 중의 선지식이다. 스님은 성해남거의 제자로 출가 시부터 통도사를 지키고 발전시키기 위해 헌신하다 열반한 수행납자였다. 스님은 열악한 환경에 직면해도 결코 굴하지 않고 현실을 타개하기 위해 노력했다. 통도사를 기반으로 하여 후학을 지도하고, 적극적으로 지역포교에 임했으며, 조계종단의 발전을 위해 헌신했다.

본 연구에서는 구하스님의 행장 분석과 함께 『축산보림』에 기고한 구하스님의 글을 바탕으로 불교사상을 분석했다. 구하스님의 불교사상은 실용주의적 개혁, 참괴극기의 계행, 진공묘유의 중도, 대자유의 평등 등 네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이러한 사상은 구하스님의 전법교화 활동 과정에서 구체화 되고 실천되었다.

주제어

불교, 조계종, 통도사, 구하천보, 축산보림

I. 서언

구하천보(九河天輔, 1872~1965)스님이 태어난 1872년은 조선왕조 제26대 왕이며 대한제국 초대 황제였던 고종(1852~1919, 재위 1863~1907)의 재위기로 실권은 흥선대원군에게 있었다. 이 시기는 안동김씨의 세도정치가 막을 내리고 풍양조씨 신정왕후(神貞王后) 조대비(1808~1890) 세력과 고종의 부친인 흥선대원군 이하응(李昞應, 1820~1898)의 섭정, 그리고 명성왕후 민씨(1851~1895) 일가의 세력 등이 치열한 권력다툼을 벌이던 시기였다.

그리고 1876년 강화도조약, 1882년 임오군란, 1884년 갑신정변, 1895년 을미사변 등이 이어지면서 청국과 일본, 그리고 러시아 등의 제국주의 세력들이 경쟁하면서 쇠국과 개항의 갈림길에 놓여 있는 상황이 벌어졌다. 결국 1910년 일본의 강제 병합으로 국권이 침탈되는 어려운 시기가 지속되었다.

구하스님은 조선시대(1392~1910) 말기에 태어나서 대한제국, 일제강점기, 광복과 대한민국 건립 등의 중요한 세기적 전환기를 모두 경험하였고, 동시에 불보사찰 통도사를 이끌며 종단의 핵심 지도자로 활동한 고승이다. 한국 근대불교사에서 구하스님과 같이 격변기에 교단에 책임의식을 갖고 헌신한 스님들은 많지 않다. 구하스님은 구한말부터 현대 한국 불교계에 이르기까지 학교 교장, 본사 주지, 30본산 주지 대표, 총무원장 등 다양한 활동을 하였고 많은 영향력과 지도력을 발휘하였다.

구하스님은 삼보사찰 중의 하나인 불보종찰 통도사에서 13세에 출가한 후 열반에 이르기까지 약 80여년을 주석하면서 많은 후학들을 지도하였다. 특히 교육기관을 설립하고 직접 지도함으로써 광복 이후 한국 불교를 이끌어 갈 수 있는 다양한 인재 양성에 앞장섰다.

구하스님의 열반 이후 한국 불교계에도 많은 변화가 있었으나 현재는 주도적인 종교로서의 위상을 상실하고 다종교사회에서 생존을 위해

고군분투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 또한 조계종단이 1962년 유일한 통합종단으로 출범한 이후 군소종단들이 우후죽순 생겨나면서 외래종교, 신흥종교 등과 함께 난립하고 있다.¹⁾

여기에 출가자 감소와 신도들의 신행 활동 약화는 불교의 사회적 지도력과 신뢰도에 악영향을 더해주고 있는 상황이다. 그리고 2019년 12월부터 시작된 코로나19의 확산과 각종 변이 바이러스의 출현으로 종교성과 종교 활동이 약화됨으로써 포교 분야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시대적 상황 속에서 구하스님이 보여준 선각자적인 안목과 사상, 그리고 다양한 포교 활동 사례 분석을 통해 새로운 포교 방법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구하스님이 주로 활동했던 시기는 이미 약 100년 전이기 때문에 현대사회와는 많은 차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변화가 초래되고 있는 현시점에서 과거에 어떻게 대응하였는가를 파악하고 그것을 통해 효과적인 포교 방법을 찾아보는 것은 필요한 일이다.

II. 구하스님의 행장 분석

1. 출가와 수행

구하천보 스님은 1872년 경남 울주 출생으로 1884년(13세) 천성산 내원사로 출가하였다. 행자 과정을 마친 후 뒤에 1889년 경월도일(慶月道一) 스님을 은사로 사미계를 수지하였다. 그리고 제방을 다니면서 내전을 수학한 후 1890년 예천 용문사의 용호해주(龍湖海株) 스님으로부터

1) 문화체육관광부 중무실, 『2009 중무행정백서』, 2010, p.103. 1990년대 말에는 전국적으로 150여 개가 넘는 종단이 생겨났고, 2009년 현재 약 180여 종단이 확인되고 있다.

참선을 공부하고 1896년 구족계를 수지 했다. 그 후 성해남거(聖海南巨) 스님으로부터 구하(九河)라는 법호를 받고, 1898년 지리산 대원사에서 대교과를 수료했다. 출생부터 출가수행 과정에서 보여준 구하스님의 행장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13세의 동진출가로 입문하여 5년이 넘는 기간 동안 행자 과정을 거쳤다. 이는 어려서 동진으로 출가하였기 때문에 20세 성인이 되었을 때 구족계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길어진 것으로 볼 수 있다. 청소년기의 행자과정은 구하스님이 불교의 전통과 교학을 철저하게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주었다.

둘째, 구하스님은 경월도일(慶月道一), 용호해주(龍湖海株), 성해남거(聖海南巨) 스님 등과 같은 고승들과 법연을 통해 내전을 집중적으로 배울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었다. 이러한 기회는 구하스님으로 하여금 다양한 선지식을 친견하면서 스스로 공부를 점검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셋째, 구하스님은 성해남거스님의 법제자가 됨으로써 통도사에 주석할 수 있었다. 이와 같은 인연은 구하스님이 통도사를 이끌어 갈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며, 수행자로서 어떤 외압에도 굴복하지 않는 호연지기를 갖추었다.

2. 통도사의 소임

구하스님은 1905년 통도사 옥련암에서의 정진 과정에서 깨달음의 경지를 체득하였다. 그리고 이듬해인 35세부터 구하스님은 수행처에 매달리지 않고 세간에 관심을 가지면서 중생구제를 위한 교화 활동에 적극 참여 하였다. 1906년 명신학교를 비롯해 1932년 입정상업학교(현 부산해동고등학교)를 설립하고, 1934년에는 통도중학교(현 보광중학교)를 설립하여 교감 및 교장 등의 소임을 담당했다.

또한 구하스님은 통도사 학림 설립에도 적극 관여 하였다. 통도사 학림은 승려교육기관으로 1925년까지 유지되었으나 구하스님이 통도사 주지를 사직하면서 일제 총독부의 압력으로 폐교되었다. 일본 통감부가 발표한 “宗教의 宣布에 관한 規則”²⁾을 접한 구하스님은 교육과 포교의 중요성을 자각하고 통도사를 일신하기 위해 노력했다.

구하스님은 1908년 원종 중무원이 설립되었을 때 인사부장에 취임하였다. 이 당시 원종 중무원 활동은 이회광이 일본 조동종과 조선 불교의 통합조약 체결하면서 종료되었다. 40세 되던 해인 1911년 구하스님은 통도사 주지에 취임하여 1925년까지 연임하면서 통도사를 이끌었다. 일본 총독부가 사찰령을 발표하자 구하스님은 1912년 ‘통도사본말사법’을 제정하였다.

주지 취임 이후 구하스님은 1912년부터 통도사 산하 사암의 재산을 관리하는 통합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연간 약 3,000~6,000석을 추수하는 토지의 관리 기능을 강화하였다. 또한 구하스님은 만해 한용운(1879~1944) 스님이 1912년부터 통도사에 주석하면서 『불교대전』을 편찬하도록 적극 지원하였다.³⁾ 이러한 지원에 힘입어 만해스님은 2년여에 걸쳐 고려대장경을 열람하여 분석한 뒤 『불교대전』을 간행할 수 있었다.⁴⁾

1914년 30본산이 중심이 되어 선교양종삼심본산회의소를 설립하고 연합제규를 제정하였을 때 구하스님은 연합사무소 상치원 소임을 담당했다. 그리고 제3대와 제4대에 걸쳐 연합사무소 위원장 겸 중앙학림 학장을 함께 역임했다.⁵⁾ 이 중앙학림은 항일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1917년 구하스님은 이회광, 강대련 등과 함께 불교시찰단의 일원으로

2) 宋炳基, 『統監府法令資料集』, 1972, 국회도서관, pp.234-235.

3) 윤창화, 「한용운의 불교대전」, 『법보신문』 제703호, 2003년 4월 23일자 참조.

4) 한용운 저, 이원섭 번역, 『불교대전: 대장경의 진수』, 현암사, 1997, p.1159.

5) 김순석, 「일제시대 불교계 저항운동 진원지 중앙학림」, 『법보신문』 2006년 11월 13일자.

일본을 방문하여 일본불교의 실상을 접하게 되었다.⁶⁾ 당시 시찰단은 일본천왕의 왕궁을 비롯하여 동경을 비롯한 주요 도시의 사찰과 시설들을 돌아보았다. 구하스님은 이를 통해서 한국불교의 전범과 교화 방향을 설정하는데 도움을 받았을 것으로 생각된다.

구하스님은 1920년 1월 『鷲山寶林』을 창간하였는데 통도사에서 통권 제5호까지 발행하고, 제6호부터는 통도사불교청년회로 전환되었으나 같은 해 10월 중단되었다. 이 잡지는 불교계 소식을 공유하고, 불교계에서 개혁 이념과 인재양성에 대한 인식을 제고시키는데 기여했다.

1919년 3·1운동이 벌어지자 구하스님은 상해임시정부에 독립운동 자금을 전달하였다. 당시 백초월 스님 등이 자금 전달책이었는데 통도사는 약 13,000원을 지원하였다. 일본 경찰이 이 사실을 알아채고 수사를 벌이자 구하스님은 속가 토지를 처분하여 사중에 변재함으로써 위기를 넘길 수 있었다.⁷⁾ 같은 해 11월 15일 상해에서 12명의 스님들이 모여서 ‘대한승려연합회 독립선언서’를 발표했는데 구하스님은 김축산이라는 별호로 참여했다.⁸⁾

1921년부터 통도사 주지 구하스님과 그 스승인 성해스님, 구하스님의 사제인 경봉스님 등과 함께 선학원 설립에 많은 관심을 기울였다. 1922년에는 조선불교유신회가 조선불교 통일기관으로 총무원을 두고자 결의하였다. 이때에는 통도사 주지 구하스님을 비롯하여 10개 본산 주지와 유신회원들이 참여하여 각황사에 총무원 설치를 주도하였다.

6) 1917년 구성된 일본불교시찰단은 김구하(30본산 연합사무소위원장, 통도사 주지), 이회광(해인사 주지), 강대련(수원 용주사 주지), 나청호(봉은사 주지), 광법경(전주 위봉사 주지), 김용곡(범어사 명정학교장), 이지영(강화 전등사 감무), 김상숙(여주 신륵사 주지), 권상로(조선불교총보 기자) 등 총 9인이었다. 『매일신보』, 1917.9.6.; 『조선불교총보』 제7호

7) 通度寺, 「九河스님 遺品-九河스님 獨立運動 資金 支援領收證」, 『鷲山 九河 大宗師 民族運動 史料集』 上卷, 대한기획, 2008, pp.258-267.

8) 『佛敎宣言書』, 『獨立新聞』 1920年 3月 1日字 參照. 이 불교선언서는 1969년 국사편찬위원회에서 발굴하였다.

이회광 등은 1922년 5월 29일 30본산 주지 총회를 개최하고 60만 원의 재원을 출연하여 재단법인 조선불교중앙교무원을 의결하였다. 그리고 같은 해 12월 30일 조선총독부로부터 조선불교중앙교무원을 재단법인으로 인가받았다. 이에 대응하여 구하스님을 비롯한 몇 개의 본산 주지들은 조선불교유신회의 지원을 받아 조선불교중앙총무원을 조직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으로 인해 구하스님은 안으로는 통도사 내부의 모함에 시달렸고, 밖으로는 총독부의 감시와 조사를 받게 되었다. 그리고 결국은 여러 가지 모함으로 법정에서 벌어진 일들이 벌어졌다.

1923년 구하스님 9월 선거를 통해 통도사 주지에 당선되었으나 조선총독부의 사상검증으로 인해 주지 임명이 지연되었다. 당시 구하스님의 주지 임명을 반대하던 승려들이 선거 절차와 수행 이력 등을 문제 삼았고, 여성 편력과 사중재산 횡령 등 비방의 글을 신문 지상에 게재하며, 법원에 고소를 한 것이 원인이었다.⁹⁾ 이 사건은 결국 1924년 1월 21일 총독부의 통첩에 따라서 재선거를 실시하였으며 구하스님은 다시 통도사 주지에 당선될 수 있었다.

당시 통도사 주지였던 구하스님은 통도사, 범어사, 석왕사가 중심이 되어 운영하던 총무원 회의에서 선학원을 직할로 운영하기로 결정하였으나¹⁰⁾ 조선불교총무원과 조선불교교무원이 통폐합되면서 무산되었다. 그리고 30본산이 다시 참여하여 삼보정재를 출연함으로써 재단법인 조선불교중앙교무원이 새롭게 결성되었다. 이때 구하스님은 조선불교중앙교무원의 이사로 취임하였다.

그러나 1924년 6월 상애회(相愛會) 회원 2명이 구하스님을 폭행하는 사건¹¹⁾이 벌어졌다. 김진태와 김준용으로 알려진 두 사람은 각황사의 조선불교총무원 사무실로 난입하여 무자비하게 구하스님을 폭행하였다. 이 두 사람은 경찰에 검거되어 실형을 언도받았다. 구하스님의 은사 성

9) 靈鷲叢林通度寺, 『영축총림 통도사 근현대 불교사』 상권, 앞의 책, p.101.

10) 「佛敎總務院 總會」, 『朝鮮日報』, 1924年 1月 5日字 參照.

11) 「覺皇寺에 殺風景」, 『東亞日報』, 1924年 6月 23日字 參照.

해스님은 노구를 이끌고 1924년 11월 15일 제3회 선학원 정기총회에 참석하였다.¹²⁾

통도사에서 주석하는 동안 구하스님은 두 가지 중요한 활동상을 보여주었다. 하나는 명신학교 운영에 참여하면서 교육사업에 헌신하였다는 점이다. 다른 하나는 원종 종무원 소임을 맡는 것을 계기로 전국적인 활동에도 관심을 기울였다는 점이다.

구하스님은 통도사 주지로 재직하면서도 사중에만 머물렀던 것이 아니라 일제의 한반도 진출이 가시화되는 상황에서 적극적인 활동을 통해 한국불교의 새로운 발전을 모색하고 있었다. 그 방법 중의 하나가 승려교육이었다.

구하스님은 주지 재직 시에 교육사업의 일환으로 학림 설치, 유치원 설립, 포교당 창건 등에 많은 관심을 기울였다. 대표적으로 1922년 통도사 입구 신평리에 여자부 학림을 설치하여 40여 명의 여성들을 교육시켰다. 같은 해에 중앙학림은 조선총독부의 압력으로 강제 폐교당했다. 그러나 중앙학림은 1928년 전문학교로 승격되었다.

구하스님의 주지 재직 시 통도사의 산하 포교당 건립 사례를 보면 1912년 마산포교당, 1923년 진주포교당 연화사, 1923년 창녕포교당 인왕사, 1924년 물금포교당 등이 창건되었다. 구하스님은 1925년 5월 9일 부산지방법원에서 여성 관련 사건과 사중재산 횡령 사건은 증거가 없으므로 기소유예 한다는 판결을 받은 이후 공식적으로 주지직을 사퇴하였다.

3. 지역포교 활동

구하스님은 통도사 주지에서 물러난 이후인 1926년부터 1944년까지

12) 김광식, 「日帝下 禪學院의 運營과 性格」, 『韓國近代佛敎史研究』, 민족사, 1966, pp.106-113.

각 지역의 도심포교당 건립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였다. 구하스님은 영남 지역 주요 도시에 전법도량을 설립하겠다는 원력을 세우고 ‘1군(郡) 1 포교당’ 원칙을 제시했다. 통도사에서 물러난 구하스님은 언양 포교당 화장사(1927), 창원 포교당 구룡사(1929), 의령 포교당 수월사(1930), 부산 포교당 연등사(1932), 울산 포교당 해남사(1936), 양산 포교당 반야사(1940) 등을 설립하기 위해 동분서주했다.

1939년 조선불교선종과 선리참구원¹³⁾이 개최한 수좌대회에서 선리참구원의 명칭을 선학원(禪學院)으로 개칭하였다. 이 대회에서는 모범총림 건설, 수좌들에게 청정사찰 할애, 수행자들의 질병 구호 등을 요구했으며 구하스님은 경산스님, 종현스님 등과 함께 선학원 교섭위원으로 위촉되어 활동했다.¹⁴⁾

포교 활동에 전념하던 시기에 구하스님의 활동은 두 가지 중요한 특징을 보여준다. 첫째, 구하스님은 통도사에 주석하면서 지속적으로 도심포교당 건립 운동을 주도하였다. 구하스님의 도심포교당 건립의 원력은 만해스님의 조선불교유신론의 영향을 받은 바 크다. 당시 만해스님은 조선불교를 쇄신하는 길은 도심포교당을 건립하는 것이라고 역설하였다. 구하스님은 만해의 이와 같은 주장을 도심포교당 건립 활동으로 실천하였다.

둘째, 포교활동기의 구하스님은 선학원 교섭위원, 조선불교조계종 총본산 태고사 건설위원, 종무 고문 등으로 참여하면서 활동범위를 통도사를 넘어 종단으로 확대하였다. 구하스님은 1927년 은사인 성해스님이 열반한 이후부터 통도사를 대표하여 조선불교조계종 총본산 건립운동의 주역으로 활동하였다.

13) 선리참구원은 1934년 일본불교에 영향을 받고 있는 교무원에 예속되지 않은 불교조직을 만들기 위해서 처음으로 설립되었다.

14) 정광호, 「한국 전통 선맥의 계승운동-선학원을 중심으로」, 『일본침략 시기의 한일불교관계사』, 아름다운 세상, 2001, pp.293-294.

4. 광복 이후의 종단 활동

구하스님은 1945년 광복부터 열반(1965)에 이르기까지 약 20여 년 동안 자신의 모든 수행력을 교단으로 회향하기 위해 노력했다. 광복 직후 불교계는 왜색불교 척결 과정에서 비구와 대처 측 사이에 치열한 경쟁이 벌어졌다. 이때 구하스님은 보광별당으로 물러나 후학을 지도하고 있었으나 새로운 교단 설립을 암중모색하였다. 같은 해 8월 21일 조선불교혁신준비위원회가 결성되자 구하스님은 고문으로 위촉되었다.¹⁵⁾

혁신준비위는 1945년 9월 22일부터 23일 양일간 태고사에서 전국승려대회를 개최하였다. 이 대회에서 중앙총무원의 교정으로 박한영스님이 추대되었고, 중앙총무원장에 김법린 스님, 총무부장에 최범술 스님 등이 선임되었으며, 중앙교무회의 고문으로는 김구하스님을 비롯하여 송만공, 송만암, 백경하, 장석상, 김상원, 강도봉 스님 등 7인이 추대되었다.¹⁶⁾ 이 때 기존의 '조선불교조계종'은 '조선불교'로, '중앙총무원'은 '중앙총무원'으로 개칭되었다. 그리고 '조선불교 교헌'을 제정하였으며, 교정(敎正) 1인을 두었다.¹⁷⁾

구하스님은 1949년부터 1951년까지 중앙불교총무원장 역임하였으며, 1955년 3월 27일 전국승려대회 준비위원회 구성되면서 불교계의 제반 권력은 비구승단 측이 장악하였다. 이때 삼보사찰을 비롯하여 19개 사찰의 주지를 임명하고, 문교부에 인가를 요청하였는데, 당시 구하스님은 통도사 주지에 다시 임명되었다.¹⁸⁾ 그러나 이후 소임을 후학에게 물려주고 1965년 세수 94세, 법랍 82세로 열반에 들었다.

15) 김광식, 「8·15 해방과 불교계의 동향」, 『한국근대불교의 현실인식』, 민족사, 1998, p.251.

16) 위의 책, p.253.

17) 영축총림 통도사, 위의 책, p.226.

18) 「帶妻僧側 寺刹 안내줄 터」, 『京鄉新聞』, 1955년 8월 18日字 參照.

Ⅲ. 구하스님의 불교사상

구하스님의 불교사상은 불교잡지 『축산보림(鷲山寶林)』에 기고된 총 5편의 글을 통해서 분석할 수 있다. 『축산보림』은 구하스님이 삼십본산 연합사무소의 위원장에서 물러난 후 1920년부터 불교 대중화 사업의 일환으로 발행한 잡지이다. 이 잡지는 6호까지 발행되었으나 중단되고 이후 통도사는 『조음』이라는 잡지를 후속으로 발간했다. 구하스님이 이 잡지에 기고한 글의 제목은 「20世紀 佛敎」, 「慙愧의 價値」, 「平常心是道」, 「大自由大平等」, 「昨日今日及明日」 등이다. 이 글들의 내용에는 구하스님의 평소 생각했던 불교관과 지향하는 내용이 상세하게 기술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 글들 속에 포함되어있는 내용 분석을 통해 구하스님의 불교사상을 네 가지로 요약하였다.

1. 실용주의적 개혁사상

구하스님은 20세기 세계에 대한 진단을 “유사 이래 미증유의 변동기”로 규정하였다. 즉 이러한 변동기에 세간에서는 민족자결주의, 공산주의, 민본주의 등 여러 가지 정치적 견해들이 제시되고 있음을 직시한 것이다. 그렇지만 이러한 주장들은 견취견에 빠져있을 뿐만 아니라 차등주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을 꿰뚫어 보았다. 때문에 구하스님은 “과도기는 혁구취신(革舊就新)이 필요한 때이며, 불교도 종래의 구태를 벗고 시대의 요구에 유감없이 충분히 공급하여 인심의 안정을 도모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금일은 구라과 대전란으로부터 유래한 우리의 사상계는 세계 유사 이래에 미증유의 변동이라. 자결주의, 혹 공산주의, 혹은 민본주의를 주장하여 어떠한 국가와 하등의 사회를 막론하고 모두 차등주의에 감염하여 그 취향의 미래를 상정하기 불능하나, ... 중략 ... 과도란 말은 혁구취신하는 뜻이

니 지금 사회의 사정에 적합하며, 시대의 요구를 유감없이 충분히 공급하여 인심의 안정을 근본적 의무로서 그 생명이 되는 불교는 과연 종래의 구태에 만족하여, 구태로서 이 시대와 사회에 적합케 될까?¹⁹⁾

이 글을 통해서 구하스님은 불교의 개혁방안으로 “구태에서 벗어나 새로운 방향을 모색해야 한다”라고 주장하였음을 알 수 있다. 개혁의 방법으로는 두 가지 길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하나는 구태불교를 완전히 배척하고 현재와는 전혀 다른 신종교를 설립하는 방법으로 가장 혁명적 변화를 추구하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종래의 불교적 장점은 취하고 단점은 버려서 새롭게 발전시키는 점진적 개혁을 추구하는 방안이다.

구하스님은 이 두 가지 방안 중에서 점진적 개혁 즉, 장점을 취하고 단점을 버림으로써 변화하는 방법을 선택하였다. 그리고 실천 방법으로는 염세적 경향의 불교를 낙천적 불교로 변화하는 것과 세속에서 나오는 종래의 방법인 출세간법을 세간법과 함께 발전시키는 것을 제시하고 있다. 구하스님은 “종교는 사회인생의 한 산물”이라고 규정은 종교가 사회적 산물이며, 그 사회 구성원들이 수용한 것으로 이해하는 종교관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구하스님은 왜색불교의 영향으로 취처육식이 확산되는 것을 경계하면서 동시에 진정한 불교의 목적은 “그 사회의 인심과 정도에 적합하게 그 시대를 구제하는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이는 구하스님이 스스로 계율을 지키면서도 동시에 매우 실용주의적 입장을 견지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구하의 실용주의는 전범교화의 방법에 있어서 사회 변화에 대응하면서 각 지역에 포교당을 건립하는 활동으로 나타났다.

구하스님 활동 당시 한반도의 전통 불교계는 한편으로 계율의 틀 속에 갇혀서 사회와 소통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일본불

19) 鷲山 金九河, 「20世紀 佛敎」, 『鷲山寶林』 第1卷, pp.4-9.; 靈鷲叢林 通度寺, 『鷲山 九河大宗師 民族運動 史料集 上卷』, 앞의 책, pp.268-281.

교의 영향으로 천년을 이어온 전통마저 위태로워지는 내우외환에 빠져 있었다. 이런 상황을 간파한 구하스님의 개혁불교 사상은 불교의 사회적 역할을 실천하는 것으로 함축되고 있다. 즉, 사회 변화에 부응하여 불교계 내부를 개혁하고 불교 발전에 필요한 역할 수행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새로운 것을 취할 수 있는 유연한 개혁불교 사상을 제시하고 있다.

2. 참괴극기의 도덕사상

구하스님은 『鷲山寶林』 제2호에 기고한 “참괴(慙愧)의 가치”라는 글에서 ‘참괴극기’의 불교사상을 제시하였다. 참괴(慙愧)는 산스크리트어 *hri-apatrapya*의 번역어로 “자신의 죄나 허물을 스스로 부끄러워하는 마음 작용을 참(慚), 자신의 죄나 허물에 대하여 남을 의식하여 부끄러워하는 마음 작용을 괴(愧)”라고 표현하였다. 참괴는 ‘부끄러워하는 마음’ 즉, 치심(恥心)을 의미하는데 자기 자신에게 부끄러워하는 마음과 남을 의식하여 부끄러워하는 마음의 양면성을 내포하고 있다.

구하스님은 선계경(善戒經)의 가르침을 바탕으로 수치심이 일어나는 내용을 네 가지로 구분하였다. 그 내용은 첫째, 해서는 안 될 일을 해서 수치스러운 것, 둘째,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아서 수치스러운 것, 셋째, 마음속에서 저절로 의심이 일어서 수치스러운 것, 넷째, 죄를 감추어 다른 사람이 알까 두려워 수치스러운 것 등이다.²⁰⁾

구하스님은 참괴(懺愧)에 대하여 “자기가 바라는 선에 나아가지 않으며, 나아가지 말아야 할 악에 치우치는 태도를 부끄러워하는 것”으로 정의하였다. 즉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고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하는 것에 대하여 스스로와 타인에게 부끄러워하고 수치심을 느끼는 것이 바로 참괴심 이라는 의미이다. 또한 『증일아함경』의 가르침을 인용하여

20) 위의 책, p.287.

“인간 세상의 질서를 세우며 운상을 주는 기초가 되는 것이 참괴이고, 참괴가 없으면 부모형제의 구별이 없으니 금수와 같다.”라고 하였다.

구하스님은 참괴의 방법으로 다음의 두 가지를 제시하였다. 하나는 자기의 뇌리에 일정한 이상을 가져야 하고 다른 하나는 ‘자기’가 어떠한 물(物)인가를 알고 근기(根機)를 갖추는 것이다.

인심(人心)은 오직 위태롭고 도심(道心)은 오직 정묘(精妙)하다. 우리의 이상(理想)과 반대(反對)된 사실(事實)이 많기 때문에 자기(自己)를 중시(重視)하며, 이상(理想)을 야기(惹起)할수록 한층 속마음에 부끄러움의 관념(觀念)이 발생한다. 수양(修養)을 할수록 자기의 능(能)하지 못함을 자각(自覺)하며, 자기가 어떠한지를 깊이 돌아볼 때에 비로소 자기(自己)의 가치(價値)를 알아야 법(法)을 믿게 되는 것이다. 바꾸어 말하면 이상(理想)과 현실(現實)의 사이에 충돌(衝突)함이 일어나게 됨으로써 참괴(懺愧)가 있는 것이다.²¹⁾

이렇게 참괴를 알고 실천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극기(克己)하고 하는 관념이 형성되어야만 한다는 것이 구하스님의 불교사상의 핵심이라 할 수 있다. 구하스님의 참괴극기 사상은“우리들은 이상 즉 목적의 경지로 향하게 되어 비로소 참괴가 생기는 것이며, 참괴가 있기 때문에 극기가 생기며, 극기가 있기 때문에 철저한 도덕이 성립하는 것”²²⁾으로 요약할 수 있다.

3. 진공묘유의 중도사상

구하스님은 『鷲山寶林』 제3호에서 「평상심시도」²³⁾라는 글을 발표한

21) 위의 책, p.289.

22) 위의 책, p.289.

23) 鷲山 金九河, 「平常心是道」, 『鷲山寶林』 第3호, pp.31-34.; 靈鷲叢林 通度寺, 『鷲山 九河大宗師 民族運動 史料集 上卷』, 앞의 책, pp.290-293.

바 있다. 이 글에서 구하스님은 인간의 마음을 두 가지 관점에서 분석하였다.

우리의 마음에는 무수한 요구가 있으나, 요컨대 크게 두 가지로 요구하는 방면이 있다. 즉 하나는 살고자 하는 욕망(慾望)이다. 예컨대 먹고자 하며, 입고자 하는 현실세계에 그 만족(滿足)을 얻고자 하는 함이요, 둘째는 이와는 정반대로 현실세계에 만족치 아니하고 이를 초월(超越)하고자 하는 희망(希望) 즉, 우리의 육체를 떠나 상징적으로 살고자 하는 요구(要求)이다. 환언하면, 한쪽은 속세계(俗世界)에 만족하나, 한쪽은 이 속세계를 떠나 이세계(理世界)에 활보하고자 함이다.²⁴⁾

여기서 구하스님은 인간의 심리가 “살고자 하는 욕망에서 만들어지는 속세계(俗世界), 다른 하나는 현실 세계에서 초월하려는 희망에서 만들어지는 이세계(理世界)에서 방황하고 있다”고 보았다. 또한 속세계(俗世界)는 물질세계에 만족하기 때문에 물질주의(物質主義)를 낳고, 이세계(理世界)는 초월 세계를 추구하기 때문에 초월주의(超越主義)라는 이념을 만든다고 분석하였다. 그리고 물질주의는 현실주의로 초월주의는 정신주의로 대칭시켜 설명하면서 무아(無我)의 불교사상을 바탕으로 중도의 체득을 강조하고 있다.

구하스님의 설명을 표면적으로만 보면 세속세계와 이상세계를 이분법적으로 설명한 것처럼 보일 수 있다. 그러나 이 도식은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이분법적 세계관을 표현한 것일 뿐 구하스님의 생각이 그러하다는 것은 아니다. 인간의 삶 속에는 현실주의적 세계관도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초월주의적 세계관이 동시에 내포되어있는 것이지 어느 하나에 지배되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것이 구하스님의 생각이다.

구하스님의 주장은 철저하게 중도적 관점에서 설파된 것이다. 염세나 초월도 삶의 일부 속에 함께 내재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조건에 따

24) 위의 책, p.294.

라 염세적 요구가 강할 수도 있고, 때에 따라서는 초월적 욕구가 클 수도 있다는 것이다. 낙천적 측면이나 염세적 측면도 인간의 내면에 들어 있는 성향으로 오로지 어느 한 가지에 지배받는 것은 아닐 뿐만 아니라 그 두 가지 큰 요구도 모두 필요한 인생관이라는 것이다.

구하스님은 진공묘유(眞空妙有)는 편공편유(偏空偏有) 즉, 공(空)에도 치우치지 않고, 유(有)에도 치우침이 없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그리고 “모든 것은 여러 가지의 조건에 의존하는 것”으로 실체가 없는 것 즉 공(空)임과 동시에 그렇기 때문에 거짓으로 존재하는 것 즉, 유(有)로서 세간적 관용의 세상에서는 그 존재성이 인정되고 주장되는 도리임을 강조하였다.²⁵⁾ 구하스님은 중도에 입각한 진공묘유의 실천원리를 조주화상의 “개는 불성이 없다”라는 가르침을 재해석하여 새롭게 설명하였다.

조주화상(趙州和尚)은 ‘개는 불성(佛性)이 없다’는 도리를 지시하였으나 이는 유(有)의 집착(執着)을 없애고자 하는 하나의 방편이라 하겠다. 유(有)로 물으면 무(無)로 답하고, 무(無)로 물으면 유(有)로 답하는 것은 실로 선정(禪定)에 관한 묘한 작용이 아닌가? 만약 진실한 거짓으로써 의논하면 그 의논은 결국 거짓에 불과하다. 어찌 무(無)가 전무(全無)라 할 진대 어찌 유(有)를 만들어 내겠는가? 요컨대 부처라 개라 사람이라 하는 집착을 깨뜨려야 이에 무아(無我)가 된다.²⁶⁾

구하스님의 중도불교 사상은 일체의 망상을 버리고 현실 세계를 초월하면서도 동시에 평상심의 유지 속에 일상생활 속에서 불법의 실천을 강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처님의 가르침과 세간의 삶이 결코 둘이 아님을 깨닫고 그것을 여여한 삶으로 실천하는 것이 구하스님의 중도불교 사상이다.

25) 김상 편저, 『불교대사전』, 흥법원, 1998, p.1498.

26) 위의 책, p.297.

일상의 생활 외에 별도로 지혜를 얻어 진리를 깨닫는 일은 왕도가 없으며, 매일의 사업 외에 별도로 도덕의 천지가 없다. 왜냐하면 지혜를 얻어 진리를 깨닫는 심리도 일상의 규칙과 사회의 제재를 복종하지 않는 것이 아니지만 다른 점은 초월주의 즉 현실에 집착하지 않는 까닭이다. 그러한 즉 우리는 평상(平常)의 수양(修養)이 중요하고 가치(價値)가 있음을 깨닫는 동시에 일상의 생활이 곧 불법이요, 불법과 세간이 결코 둘이 아님을 깨달아야 할지라도.²⁷⁾

구하스님의 중도사상은 깨달음이 평상의 수양 속에서 체득되는 것이고, 일상생활이 곧 불법이기 때문에 불법과 세간은 결코 둘이 될 수 없다는 가르침으로 요약되고 있다. 일체의 망상을 버리고 현실세계를 초월할 때 향상일로의 묘미가 존재한다는 구하스님의 가르침은 현대사회에서 실천되어야 할 핵심 교설이다.

4. 대자유와 평등사상

구하스님의 불교사상 중 한 축은 평등불교 사상으로 요약할 수 있다. 그러나 스님이 제시한 평등불교는 일반적 평등이 아니라 절대적 구속과 제한이 없는 대자유와 대평등을 수반한 개념이다.

자유(自由)와 평등(平等)이라 함은 금일 일반 세간에 창도(唱導)하는 바로 우리의 평상(平常)에 일대 표어(標語)가 되었다. 그러나 세인(世人)이 늘 사용하는 언사(言辭)로 주창하는 자유·평등은 진정한 자유·평등이 아니라 하노라. 환언하면 그 의미에 본의를 오해함이 심하다 할지라도. 일반 세인의 소위 자유·평등에는 구속(九屬)이 있으며 제한(制限)이 있다. 이처럼 구속이 있고 제한이 있으면 어찌 자유라 이를 수 있겠는가. 절대적으로 구속이 없으며 제한이 없음이 진실로 대자유, 대평등이라 할지라도.²⁸⁾

27) 위의 책, p.297.

28) 鷲山 金九河, 「大自由大平等」, 『鷲山寶林』 第4호, pp.7-11.; 靈鷲叢林 通度寺, 『鷲山 九河大宗師 民族運動 史料集 上卷』, 앞의 책, pp.298-309.

위의 글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세간에서 말하는 자유와 평등에 대하여 구하스님은 “구속(九屬)이 있고, 제한(制限)이 있기 때문에 완전한 자유와 완전한 평등이라고 말할 수 없다”고 단언하였다.

구하스님은 유교의 자유와 불교의 자유를 대비시켜 “현우칭탁의 차별이 자유와 부자유, 평등과 불평등의 분기점”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또한 불교의 대자유는 “우주 만물의 평등 무차별인 본체계를 지칭하는 것”으로 강조하였다.²⁹⁾

구하스님이 추구하는 자유는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활발발지(活潑潑地)의 묘용(妙用)’이다. 진실로 본연(本然)의 자유(自由)는 그 작용이 인문적 도덕적으로 훈련된 자유 속에서 실천되는 행위 작용이다. 자유는 개념적으로만 존재하는 것도 아니고, 압제적, 복종적, 소극적 행동 속에서 찾아지는 것도 아니다. 타율적이고 기계적인 자유가 아니라 스스로 깨우치고, 스스로 인정하고, 스스로 감내하는 속에서 나오는 활발발한 행동이 바로 대자유라는 가르침이다.

일신(一身)을 위하여 활동하는 자, 일가(一家)를 위하여 활동하는 자, 일국(一國)을 위하여 활동하는 자, 한 사회(社會)를 위하여 활동하는 자, 그 활동함은 모두 다 자발적 적극성을 필요할지니 압제적, 복종적, 소극적이 되기는 불가능하다. ... 중략 ... 이에 반하여 자발적, 적극적 활동에는 자각(自覺)이 있고, 자인(自認)이 있고, 활발발지(活潑潑地)의 묘용(妙用)이 있다. 그런고로 자감(自甘)하여 그 의무를 복종하며 스스로 기뻐하여 그 일에 따르며 자진하여 그 몸을 헌(獻)하며 그 직무에 순(順)하나니 이것이 진실로 본연(本然)의 자유(自由)의 작용, 즉 인문적 도덕적 훈련된 자유라 할지라도. 그러니 우리는 자유를 구하지 아니함이 아니라 그 행위 작용에 의하여 논하는 바이다.³⁰⁾

구하스님은 평등을 “현실세계에 있어 평범한 상식으로 관찰하면 소위

29) 위의 책, p.306.

30) 위의 책, p.308.

운운함은 도저히 불가능하다”라고 설명하면서 사람의 차별적 요소를 넘어선 평등을 강조하였다. 또한 “개인이 가치가 있으면 개인의 취합체인 국가 사회도 가치가 있으며, 개인이 하등의 가치가 없으면 개인의 취합체인 국가 사회도 역시 가치가 없다.”고 보았다. 그것은 “마치 오합지중(烏合之衆)이 오합의 단체 됨을 면치 못하는 것”과 같다고 비유하였다. 그래서 각각의 구성원들이 “자기의 존재 의의를 알면 가족 존재의 의의를 알고, 가족 존재의 의의를 알며 종족 존재의 의의를 알고 종족 존재의 의의를 알면 인류 존재의 의의를 안다”라고 설명하고 있다.

구하스님은 “대평등의 견지에 선 자는 차별의 속계에 처하여 대자재 즉, 대자유를 얻는다”고 설교하였다. 그리고 각각의 사람들은 자기의 직분을 충실하게 다하는 동시에 그 존엄을 자각하는 것이 대자유와 대평등의 경계에서 ‘정욕적 자유의 노예 됨을 피탈’할 수 있다는 것이 구하스님의 사상이다.

IV. 결어

구하스님이 활동하던 시기에 한국불교는 일제강점기의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다. 일본불교는 조선총독부를 앞세워 세력을 넓혀갔으며, 비구승가의 전통을 훼손시키기 위해 몰두하였다. 그리고 한국불교는 이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고 빠른 속도로 왜색화(倭色化) 되었다. 구한말부터 일제강점기 동안에 주요 본사에는 큰 스님들이 주석하면서 한국불교의 중심을 지켜주고 있었으나 밀려오는 외세와 일본불교의 영향을 적절히 막아내지 못하고 있었다.

그것은 통도사에서조차 직면한 현상이었다. 성해남거 스님이 주석하는 기간 동안 통도사는 그나마 전통을 유지하면서 불보사찰의 위의를 지킬 수 있었다. 그렇지만 성해남거 스님이 1927년 열반에 들면서 통도사

의 입지는 매우 불안하였다. 문하에 구하천보(九河天輔, 1872~1965), 재하법성(齋河法晟), 경봉정석(鏡峰靖錫, 1892~1982), 경하달윤(鏡河達允) 등의 스님들이 성장하고 있었기 때문에 미래에 희망은 있었으나 당장 눈앞에 다가오는 일본의 칼날을 막아내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이 당시 구하스님은 1911년부터 1925년까지 통도사 주지를 역임하였다. 구하스님의 통도사 주지 퇴임 당시에 조선총독부는 전국의 주요 사찰에 포교사를 파견하고 본말사법 제정을 통해서 일본불교의 통제와 지시를 받도록 법제화하였다. 또한 일본불교 한반도 진출에 가장 걸림돌이 되었던 통도사의 구하스님을 밀어내기 위해 온갖 만행을 다 동원하였다. 그렇지만 구하스님은 이에 굴하지 않고 승려 독립선언문 발표, 독립운동자금 지원 등을 계속하였다. 그리고 어떤 탄압이 가해져도 결코 통도사를 떠나지 않았다. 선지식들의 이러한 결기는 1945년 광복 이후부터 통도사가 흔들림 없이 불보사찰의 위상을 지켜나가는 원동력이 되었다.

성해남거 스님의 직제자들을 비롯하여 구하스님의 제자들은 현대 한국불교 중흥의 일익을 담당하였다. 선학원 설립과 대한불교조계종단의 창종 과정에서도 구하스님을 비롯한 통도사 대중들은 중지종풍 수호에 앞장섰다.

1945년 광복 이후부터 1965년까지 약 20여 년의 기간 동안에도 통도사의 중심에 구하스님이 있었다. 때문에 구하스님의 불교사상 연구는 당시 통도사를 이끌어 가는 핵심 이념이며 실천원리로 자리 잡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본 연구에서는 구하스님의 불교사상을 주로 『鷲山寶林』에 기고된 원고를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분석 자료가 제한되었기 때문에 큰 스님의 사상을 완전하게 조명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렇지만 구하스님이 직접 기술하고 발표하고, 간행한 글이기 때문에 다른 어떤 자료보다 논리적이고 체계적인 내용이 집약되어 있어 자료로서의 가치가 매우 높다. 이 기고문들을 중심으로 본 고

에서는 구하스님의 불교사상은 다음과 같은 네 가지로 요약하였다.

첫째, 구하스님은 실용주의적 개혁사상을 주장했다. 혁구취신(革舊就新)으로 제시된 구하스님의 개혁불교 이념은 1900년대 초의 급격한 사회변화를 경험하면서 제시된 경험적 가치가 반영된 사상이라고 할 수 있다. 시대의 요구에 부응하여 구태를 벗어버리고 사회적 요구를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것이 불교의 나아갈 바라는 것이 구하스님의 가르침이다. 구하스님은 견취견이나 계금취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불교계에 대하여 구습에서 벗어나 인심(人心)의 안정에 기여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당시 일본불교는 취처식육의 문화를 전파하였고 주요 본사에는 일본 포교사들이 상주하면서 사찰 관리 업무를 장악하고 있었다. 또한 일본 불교계는 한반도에 500개의 사찰을 지으면서 적극적인 포교활동을 전개하고 있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 구하스님은 계율을 준수하면서 동시에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는 실용주의적 개혁을 강조했다.

둘째, 구하스님의 참괴극기의 도덕사상은 “자기가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고, 하지 않아야 할 일에 치우치는 것을 부끄러워해야 한다”는 가르침으로 요약할 수 있다. 구하스님은 스스로를 직시하고 또한 일정한 이상을 마음에 새기고 그것을 실천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것은 당시 불교계가 해야 할 일은 하지 않고, 하지 말아야 할 일에 집착하는 오류를 시정하기 위한 가르침으로 해석할 수 있다. 참괴사상은 참재(懺財)와 괴재(愧財), 즉 부끄러움과 수치심의 재산이라는 부처님의 가르침에서 비롯되었다. 스스로에 대해서 부끄러워하고 남에 대해서도 부끄러워할 줄 아는 것이 성스러운 일곱 가지 재산의 핵심 요소이다. 구하스님은 계율에 의지하는 참괴극기의 도덕성을 바탕으로 자신의 가치를 스스로 알고 정법에 의지하는 불자로서의 삶을 제시했다.

셋째, 구하스님은 진공묘유의 중도사상을 피력하였다. 중도 중시의 불교사상은 양극단에 치우치지 말고, 정법에 의지하여 진공묘유의 삶을 영위해야 한다는 가르침이다. 구하스님은 조주화상의 문답에서 ‘개에게

도 불성이 있는가?’라는 질문에 대하여 없다고 한 것은 유(有), 즉 존재에 대한 집착을 타파하려는 중도적 가르침이라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가르침은 중론에서 제시된 용수의 사상과도 연계되어 있다. 구하스님은 현실 세계를 초월하는 삶을 사는 것이 출가자의 수행 방법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현실 세계를 떠나라고 주장한 것은 아니다. 현실 세계를 떠나지 않으면서도 현실을 초월할 수 있는 삶이 바로 진공묘유의 중도를 실천하는 길이라 할 수 있다.

넷째, 구하스님은 대자유의 평등사상을 강조하였다. 구하스님의 평등사상은 단순한 세간적 평등이 아니다. 구속이 없고 제한이 없는 진실한 대자유를 바탕으로 하는 평등불교의 이념을 제시하였다. 즉, 활발발한 묘용이 실천될 수 있는 평등이야말로 대평등의 핵심이라고 강조한 것이다. 구하스님의 대평등은 스스로 깨우치고, 스스로 인식하면서 실천이 뒤따르는 자발적 실천을 바탕으로 한 평등불교의 실천원리이다.

이와 같은 사상적 측면은 구하스님의 일생을 관통하는 핵심적인 불교사상이며, 후학들에게도 큰 영향을 미쳤다. 특히 직제자인 월하스님에게 미친 영향은 매우 지대하다. 구하스님은 제자들에게 많은 서간문을 남기면서 끊임없는 지도로 다음 세대의 지도력을 형성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었다. 구하스님의 주장했던 불교사상이 1962년 이후 한국불교계와 대한불교조계종단에서 제대로 구현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그렇지만 구하스님의 불교사상은 수많은 역사의 질속에도 불구하고 종단과 승가가 바로 서게 하는 균형추 역할을 한 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참고문헌

- 김광식, 「8·15 해방과 불교계의 동향」, 『한국근대불교의 현실인식』, 민족사, 1998.
- 김광식, 「日帝下 禪學院의 運營과 性格」, 『韓國近代佛敎史研究』, 민족사, 1996.
- 김순석, 「일제시대 불교계 저항운동 진원지 중앙학림」, 『법보신문』, 2006년 11월 13일자.
- 길상 편저, 『불교대사전』, 흥법원, 1998.
- 문화체육관광부 중무실, 『2009 중무행정백서』, 2010.
- 宋炳基, 『統監府法令資料集』, 국회도서관, 1972.
- 靈鷲叢林通度寺, 『영축총림 통도사 근현대 불교사』 상권
- 윤 균, 「근대불교 종단 형성과정에서 나타난 구하천보의 변혁적 리더십 연구」, 한양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2022.
- 윤 균, 「구하대종사의 변혁적 리더십 연구」, 『佛敎學報』 제73집, 2015.
- 윤창화, 「한용운의 불교대전」, 『법보신문』 제703호, 2003년 4월 23일자.
- 정광호, 「한국 전통선맥의 계승운동-선학원을 중심으로」, 『일본침략 시기의 한일불교관계사』, 아름다운 세상, 2001.
- 鷲山 金九河, 「20世紀 佛敎」, 『鷲山寶林』 第1卷
- 鷲山 金九河, 「大自由大平等」, 『鷲山寶林』 第4卷
- 鷲山 金九河, 「平常心是道」, 『鷲山寶林』 第3卷
- 靈鷲叢林通度寺, 『鷲山 九河大宗師 民族運動 史料集』 上卷
- 通度寺, 「九河스님 遺品-九河스님 獨立運動 資金 支援領收證」, 『鷲山 九河大宗師 民族運動 史料集』 上卷, 대한기획, 2008.
- 한용운 저, 이원섭 번역, 『불교대전: 대장경의 진수』, 현암사, 1997.
- 『京郷新聞』, 「帶妻僧側 寺刹 안내줄터」 1955年 8月 18日字.
- 『獨立新聞』, 「佛敎宣言書」 1920年 3月 1日.
- 『東亞日報』, 「覺皇寺에 殺風景」. 1924年 6月 23日字.
- 『매일신보』, 1917.9.6.
- 『조선불교총보』 제7호
- 『朝鮮日報』, 「佛敎總務院 總會」 1924年 1月 5日字.

Abstract

A Study on the Buddhist Thought of the Ven. Guha Cheonbo

Kim, Eung-chul
(JoongAng Sangha University)

Buddhist monk, Ven. Guha Cheonbo(1872-1965) is one of the foreknowledge that watched the late Joseon Dynasty, the Korean Empire, Japanese colonial era, independence, and the founding of the Republic of Korea.

Ven. Guha was a disciple of Ven. Seonghae Nameo, devoted his life to protecting and developing Tongdosa Temple from the time of his marriage, and was a Buddhist monk who practiced nirvana. Ven. Guha never gave in even in the face of poor conditions and tried to overcome reality. He guided his disciples based on Tongdosa Temple, actively engaged in local missionary work, and devoted himself to the development of the Jogye Order.

In this study, I analyzed the life of Ven. Guha and analyzed his writings contributed to the magazine, *Chuksanborim*. And based on this analysis, his Buddhist ideas were derived.

Ven. Guha's Buddhist ideas can be summarized into four categories: pragmatist reform, asceticism through penance, the middle of ideology and reality, and great equality based on great freedom. These ideas were embodied and practiced in the process of Ven. Guha's missionary activities.

Key words

Buddhism, Tongdosa, Guha, *Chuksanborim*.

논문투고일 : '22. 05. 02. 심사완료일 : '22. 05. 25. 게재확정일 : '22. 05. 25.